同窓會 指標

•參與
•協力
•榮光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大學校
#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秀
印刷人 韓 鍾 愚

發 行 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5, 717-8536～7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單大別 총회 盛況 :** 參與와 協力으로 발전을 다져가는 정기총회가 지난 6월 각 단과대학별로 러시를 이루었다. 〈사진〉
① 法科大學동창회 ② 商科大學동창회 ③ 行政大學院동창회
④ 蔚山支部 ⑤ 經營大學院 동창회 총회 모습

# 同學의 熱氣, 새로히 發展 다짐

## 冠岳春秋

## 參與하여 榮光 찾자

지난 달에는 各單科大學同窓會의 定期總會가 열려 任員選出이 있었다. 대부분의 임원이 유임되어 新鮮味는 별로 없었으나 그래도 새로운 포부개진이 있었다. 해를 거듭할 때마다 늘어나는 會員數에 비하여 參加者數는 크게 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총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당선동문의 축연이 겹쳤다. 92명의 국회의원 당선되었고 19명의 각료를 배출했으니 축하할만한 일이었다. 특히 法大同窓會의 경우 국회의원당선자도 많았고 장관으로 임각한 동문도 많아 天下第一法大를 자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文理大同窓會는 人文大學同窓會와 社會大學同窓會, 自然大學同窓會로 나누어졌기에 잘 모이지를 못하고 科別同窓會로 발전하고 있는 감이 있다. 이 경향은 큰 單科大學의 경우 보편화되고 있다.

各科別同窓會는 또 期別同窓會, 친목서클로 운영되기도 한다. 期別同窓會나 科別同窓會는 유대감이 절어 많이 모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舊情을 다지게 된다. 지방에서의 單科大學同窓會支部의 활동도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 單位同窓會가 발전하여야만 總同窓會도 활성화될 수 있기에 單大同窓會의 활발한 운영이 期待된다.

各單科大學 同窓會가 그동안 地方支部창설과 海外支部창립에 노력해온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醫科大學의 경우에는 美洲同窓들이 母校에 의료기계와 도서뿐만 아니라 장학금까지 보내주고 있어 흐뭇하다. 금년에는 醫大 12회졸업생들이 졸업 30주년을 맞아 홈커밍행사를 할 예정이라 한다. 法大에서도 그동안 졸업 20주년행사가 있어 왔고 다른 單科大學에서도 홈커밍행사가 확산되고 있다. 옛날 그 校庭의 실과 恩師를 찾는 홈커밍행사는 특강하 장려되어야 하겠다.

期別同窓會나 科別同窓會가 활성화되는 것은 임원진이 자주 바뀌어 새로운 임원들이 업적을 쌓으려고 동분서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單科大學同窓會가 침체한듯한 인상을 주는것은 會長團의 長期執權에 責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오랫동안의 隋性에 젖어 연례행사만 치루는 單大同窓會도 있는데 單大同窓會의 활성화는 우리들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기에 同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우리 同門들은 一騎當千이기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單騎奮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팀플레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의식하에 단결을 하여야 하겠다. 또 母校의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동창회의 도움없이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에 동창회로 뭉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마저 없지 않다.

同窓會는 이들 동문들의 孤立化경향을 잘 파악하여 동창들이 모일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 모여서 옛날을 회상하고 즐겨야할 동창회날 행사가 출세한 사람들에게 감사패나 주고 이들에게 아첨하는 행사가 되는 경우 많은 동문들이 소외감을 가지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동창회행사는 친목 위주로 나아가야 할 것이나 또 동창회 사무기부금이나 거두는 것이 전부여서는 안 될 것이고 회원들에게 위주로 하여야 사무를 어비스하는 하겠다.

성장의 계절을 맞아 우리들은 동창회 발전의 역군이 되어야 하겠다. 각종의 동창회모임에 적극 참가할 뿐만아니라 동창들이서로를 이끌어 주고 보살펴주어 누구나 동창의 고마움을 느끼도록 하여야 하겠다. 물론 學緣에 따른 分派意識을 강조할 필요는 없으나 끈끈한 友情을 돈독히 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그동안 同窓會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모두가 회원들과 임원들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였다. 우리 同窓會의 영광은 많은 동문들의 참여에 의하여서만 달성될 수 있기에 동문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부탁하여야 하겠다.

母校는 올해들어 많은 수난을 겪고 있다. 民主化 自律化에 따르는 잡음이 예상되기는 하였으나 器物破壞 暴言등으로 敎權은 땅에 떨어지고 母校의 명예에 또한 실추되었다. 同窓들은 母校의 이 危機를 극복하는데에도 一助를 하여야 하겠다.

학생들의 과외활동비용이 없는 경우 學校로서는 지원할 방도가 없으나 同窓會등에서 지원을 약속하고 학생들의 自制를 당부하였던들 이번과 같은 不詳事는 예방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同窓會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학생들의 반발을 무마하여 교권을 수호하고 母校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도 노력하여야 하겠다.

成長의 계절에 同窓會의 성장과 발전이 이룩되어야 하겠다. 회원 여러분은 참여를 통하여 同窓會를 영광되게 하여야 하겠다.

# 母校의 淵源

母校인 서울大學校는 1946년 창립이래 수많은 人材를 배양해 왔다. 도리켜 보면 서울大學校의 뿌리는 그 淵源이 國立大學의 성립과 깊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開化期이후 설치된 여러 고등교육기관 또한 무관치 않다. 여기에 있어 母校의 뿌리를 찾아오는의 서울大學校의 偉容과 學風에 대한 바른理解를 위하여 「서울大學校의 뿌리」라는 연재물을 싣게 되었다. 이 연재물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의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뿌리를 알게 될 것이며, 서울大學校 同門으로서의 一體感을 얻게 될 것으로 믿는다.

筆者인 韓基彦교수는 서울大學校師範大學(1949年卒業)과 同大學院 敎育學科(1952年卒業)를 나와 1952年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母校 敎授로 재직하고 있다. 本企劃物은 서울大學校史의 새로운 提示가 될 것으로 크게 期待된다.

# 서울大學校의 뿌리 ①

韓 基 彦
(49년 師大卒, 母校師大교수)

## 46년 美軍政令에 따라 國立大로 創設

서울大學校는 1946년 8월 22일 우리나라 최초의 유일한 국립 종합대학교로서 창설되었다. 이것은 在朝鮮美國陸軍 司令部 軍政廳 법령 第102호인 「國立 서울大學校 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한 것이었다.

생각컨대, 서울大學校의 창설은 실로 오랜 역사를지닌 우리나라 國立大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역사로 말하면 오늘날 알려진 바 세계에서도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즉 고구려의 「太學」 창설로부터 헤아린다면 1617년전의 일이요, 삼국 통일후 세워진 신라의 「國學」 창건부터 헤아려 보아도 1307년 전의 일인 것이다.

본래 「大學」의 개념으로 보아도 역사상 대학의 기원은 동양이 서양 보다도 오래 된다. 그 중에서도동양에서는 중국의 大學이가장 오래 되며 周代의 五學으로 이루어진 國學은당시 이미 알려진 바 짜임새있는 국립대학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대학은 본시 國都에 하나만세워지는 것으로서, 이것은그 후 천하를 통일한 漢과隋·唐이래로 宋·元·明·淸代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었다. 그리고 그 명칭도 「國子監」으로 일컬어졌던 것이다. 이 경우에 「국자감」이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 세워진 국립대학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우리도 고려시대에 「國子監」이라고 한 것은 대학의명칭으로 보면 중국의 국학을 본딴 것임을 알수 있다. 그러나 蒙古 침공 이후 元帝國의 지배하에 있게 되자 고려의 國子監은 格下 당하여 成均館이라고 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의 대학은 그러기에 그 성격상 어디까지나 국립대학이었다. 이 점 서양의 대학이 그 기원에 있어 중세의 僧院學校로부터 발전 못한 사립학교로부터 발전하여 이른바 中世大學이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하겠다. 단적으로 말해서 동양의 경우가 국립 대학인데 반하여 서양은 처음부터사립대학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학역시 國立大學이라는 전통을 지니고 있고, 또한 한 王朝時代에 국립대학은 언제나 하나의 國學으로써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다.

이제 서울大學校의 역사적 연원을 상고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나라 國立大學의 역사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冠岳캠퍼스 大學本部

하나는 國立大學의 제도적 진전에 관해서이다.

이미 앞에서 약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大學의 起源은 고구려 小獸林王 2년(372)에 세워진 「太學」으로 볼수 있다. 한편 고구려와 아울러 나라를 세웠던 百濟와 新羅에도 국립대학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알길이 없다. 다만 백제의 학자 王仁박사가 285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典籍과 더불어 漢字를 전달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는기록으로 보아 백제에도 고등교육 기관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추측할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렇건만 비교적 자상한 내용을 전하여 주는 古代의 國立大學으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神文王 2년(682)에 설립한 「國學」을 들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고려의 國子監은 국립대학인 신라의 「國學」의 전통을 이어 설치된것이라 하겠는데, 고려시대의 최초의 대학은 930년(太祖 13년)에 西京에 세워진 학교와는 별도로 마련된 「學院」인 것 같다. 六部生徒를 모아 가르치게 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그 내용이 분명하지가 않다. 다만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이 학원은 國子監의 前身일 것으로 보고 있다. 「國子監」이 세워진 것은 成宗 11년(992)의 일이다. 그리고 고려 國子監에 대한 상세한 것은 仁宗 때 式目都監이 자세하게 정한 學式에 의하여 대체로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의 국립대학인 「國子監」은 그 전신인 國學이나 그 후신인 成均館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육의 목적을 全人敎育과 國家有爲의 인재양성에 두었었다. 달리 말하면 유교적 교양을 지닌 지도자 양성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國王이 대학을 위하여 내린 여러 차례의敎令을 통하여서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요, 사용된 교과서를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점 國立大學의 學風에 관하여 살펴보아야겠다. 단적으로 말해서 서양중세 대학과 비교해 볼 때, 즉 國立大學의 學風은 倫理的 우리나라의 대학, 이었다는데 그 특징이있다. 이에 반하여 서양의중세대학은 신학적 대학이라는데 그 특색이 있었다. 그러다가 서양의 대학은 19세기에 이르러 철학적 대학이라 하여 「학문을 위한 학문의 대학」이라고할 상아탑적 성격의 대학이되었고, 또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대학이 그렇듯이 실용주의적 성격의대학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기본적 이해아래 우리는 다시금 지난날의우리나라 국립대학의 학풍을 되돌아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근대학교 성립 이전까지는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유교가 교육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그리고 삼국시대로부터 고려말까지는 불교의 영향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불교는 학교외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보였지 학교 교육의교육내용은 되지 못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대학 역시 유교의 경전인 四書五經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大學이 국가사회의 기간이요 정신적 원동력이 된다는 생각은 대학 설립 이래 국왕을 비롯하여 당대의 석학들에 의하여 주장되어 온 바였다. 이를테면, 「化民成俗 必由學校」라고 표현한 말이라든가, 「學校風化之源」이라고 한 것을 보아도, 백성을 교화하고 좋은 습속을 이룩하게 하는 곳이 대학이요 국민교화의 근원지가 대학이라는 생각을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글귀는 고려 穀宗 22년 3월의 詔令과 忠肅王 12년 교령에 보이는 말이기도 하다. 같은 취지의 말은 국왕에의해서만이 아니고 신하들이 올린 글에서도 쉽사리 찾아 볼 수 있었다. 즉, 大司憲 趙浚 등의 상소문역시 「學校風化之源 國家理亂 政治得失 莫不由斯」라 말할 때도 거의 그대로사용되었다. 그들은 大學을일컬어 「首善之地」요 「風化之源」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國立大學인 「成均館」은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당시의 지배 사상이었던 주자학을 연구·보급하는 「學問의 殿堂」으로서의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朱子學理念에 입각하여 국가의 관리를 양성 하는 「官吏養成所」로서의 기능이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능 중에서 관리 양성소로서의 기능은 이미 고구려의 太學을 비롯하여 신라의 國學, 고려의 國子監 등에도 있어 왔다. 그러나 전자인 學問의 전당으로서의 기능은 朱子學이 수입된 忠烈王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하여 조선시대의 成均館은 유교이념을가르치고 배우는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기능을 명실상부하게 지니게 되었다.

# 三國시대 「太學」 「國學」을 嚆矢로

## ——四書五經이 學問의 주종 이뤄——

## 薛聰, 安珦, 李穡, 李滉이 學風세워

이러한 국립대학의 학풍은, 멀리는 신라의 國學교수였던 薛聰을 비롯하여 고려의 國子監의 교수였던 安珦, 그리고 고려 말기의 大司成이었던 李穡 등을 거쳐 조선시대의 成均館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 거명한 薛聰은 神文王에게 국왕으로서 수양할 바를 비유적으로 일러 드린 「花王戒」로서도 유명하거니와 유학자로서의 그의 심오한 학식이 당시 학생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安珦 역시 高麗史에 기록된 바 그의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국자감 학생들에게 단순히 유학내용을 교수한 데 그치지않고 참된 선비될 길을 가르친 교수였음을 생각케 한다. 사실 기록에도, 학생중 선인들에게 붙손한 행동을 한 학생을 크게 꾸짖었다는 얘기와, 한편 순수하게 타일러 올바른 행실이 무엇인가를 가르쳤다는 내용의 것도 전하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成均館의 大司成을 지낸 분 중에는 전국초에 활약한 權近을 비롯하여, 그후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卞季良, 李彦迪, 周世鵬, 李滉, 金繼輝, 奇大升, 李山海, 金堉, 李縡, 金正喜, 韓啓源등 碩儒, 名臣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 중 한 사람인 李滉의 學德을 그의 「글行錄」을 통하여 살펴 보아도알 수 있듯이, 國立大學의 학풍이 어떠하였는가를 알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國立서울大學校의 연원은 고구려의 太學이나 신라의 國學이래의 國立大學의 역사에서 찾을 수있는 것이요, 또한 그간 이룩해 온 國立大學의 긍지와 學風을 계승하고 있음을 생각치 않을 수 없다.

# 무더위 잊은 豊盛한 同窓행사

## 親睦·結束으로 団合을 과시 榮轉동문 祝賀宴도 줄이어

5월에 이어 6월에도 單大 총회가 잇따라 열려 동문들의 結束力을 한껏 과시했다. 8일에는 法大와 商大가 제6공화국 인각동문 및 13대국회의원 당선동문들의 축하연을 겸해 개최했고, 23일은 52년文理大 입학동기 모임인 文理85會와 農大農家政科가 한자리에 모였다. 또 24일에는 지방지부에선 유일하게 蔚山支部가 그리고 25일에는 纖維大學院 총회가 그뒤를 이었다. 6월에 수놓아진 이들 행사소식을 개최일자별로 紙上中繼 한다.

### 法大

法大同窓會(회장 金性洙)는 지난 8일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회원 약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88년도 定期總會를 개최했다.

金鎭武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총은 金性洙회장의 인사 및 신임회원 환영사, 李壽成학장의 축사, 신입회원 대표 답사에 이어 牌전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牌는 제6공화국 임각동문과 13대 국회의원 당선동문 39명에게 축하패를 裵載混전학장과 16개 우수지부 간사에게는 감사패를 각각 증정했다. 또 각종 훈·포장을 받아 모교를 빛낸 6명의 동문에게는 기념패를, 장학회에 특별장학기금을 출연한 「87동창회」에는 장학패를 증정했다.

이어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가 먼저 1987년도의 決算과 1억3천7백여만원에 달하는 1988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그리고 임원선임에서는 金性洙현회장을 재선임하고 부회장단구성은 金회장에게 전적으로 일임키로 한후 이날의 총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崔主鎬회장이 28일 모교를 방문, 총장실 亂入사태에 대해 동창회로서의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 商大

商大同窓會(회장 張禮準)는 지난달 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榮進동문의 축하를 위한 임시총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李珌寧명예회장, 張禮準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3백50여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13대 國會議員 당선 동문과 제6공화국 國務委員 및 政府部處의 大統領비서실 요직에 취임한 동문들을 영하고 축하하였다.

이날 행사는 張禮準회장의 축하인사와 축하동문 소개에 이어 13대國會議員에 당선된 10명의 동문에게 祝賀牌를 수여하였으며, 이에대해 국회의 장과 정부측을 대표한 金在淳국회의장과 李贊宇국무총리의 답사가 있었다.

이어 칵테일파티를 가지며 이들의 榮進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 文理大

文理85회(52년 文理大 입학동기 모임)는 지난 23일 하오7시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하계모임을 가졌다.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손춘규회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은후 학창시절의 회고와 함께 자기소개, 장기자랑 등을 가지며 오랫만에 흥겨운 시간을 함께 했다.

### 農大

農大 農家政科 동창회는 지난달 23일 낮12시 동문에게 祝賀牌를 수여하였으며, 이에대해 국회의 장과 정부측을 대표한 金在淳국회의장과 李贊宇국무총리의 답사가 있었다.

이어 칵테일파티를 가지며 이들의 榮進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 蔚山支部

本會 蔚山支部는 지난 24일 하오7시 蔚山大學校 중강당에서 88년도정기총회를 개최하고 朴永哲회장의 후임으로 秋收旭부회장(57년 商大卒·삼부기계대표)을 새회장으로 선출했다.

회원 약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또 부회장에 韓鍾瑞(현대중공업부사장), 金明官(현대자동차전부), 金石基(내경기계기술사장) 동문을 선출하고 감사에는 鄭三郁(울산중앙고교장), 鄭又謨(울산싸이로사장) 동문을 각각 선출했다. 그리고 간사장은 울산대학교 尹範相교수가 임명되었다.

이어 새로운 理事陣의 승인이 있은 후 支部의 발전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총회가 끝난 후에는 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겨 부페식 만찬으로축배, 여흥및 행운상 추첨 등을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經營大院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李孝益)는 지난25일 하오5시 富平 三益樂器製造㈜ 강당에서 금년도총회를 개최했다.

梁承現간사장의 사회로 개최된 이날 총회는 李孝益회장의 인사, 李聖秀본회상임부회장의 축사, 經營大 학장을 대리한沈昞求전학장의 인사에 이어 동창회 유공회원에 대한 感謝牌증정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감사패는 영구이사인 文秉岩·李澧鎬동문이 수여받았고 이어 모교 經營大大學院 자치회장인 金芳熙군에게는 1년간 登錄金 전액을 지급한다는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다음에는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가 먼저 87년도의 決算과 88년도의사업계획 및 예산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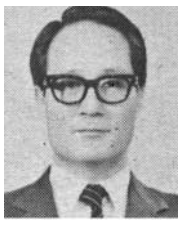
총회가 끝난후에는 신입회원들을 환영하는 相見禮와 함께 三益樂器측에서 마련한 조촐한 파티가 있었다.

또 참석동문 모두에게는 집행부의 노력으로이날 총회에 맞춰 새로발간된 회원명부가 배부되어 이날의 모임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한편 이날총회는 가족동반으로 열려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週末을 즐길수있었는데, 특히 총회에 앞서 三益피아노 제조공정에 대한 見學과 工場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관람, 産業현장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 李埈鎔부회장 5천만원 出捐

## 재단법인 「冠岳會」 基金으로 10억基金 造成에 큰 起爆劑



지난 6월22일 李埈鎔부회장(60년商大卒·大林産業부회장)이 본회의 장학법인인 재단법인 冠岳會에 5천만원을 출연했다.

李부회장의 이번 쾌척은 동창회관 건립에 이어 제2의 도약을 다짐하는 10억기금 造成事業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6년부터 부회장으로 동창회에 참여한 李동문은 그동안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크게 기여해 왔는데 지난해에 李聖秀상임부회장으로부터 金相廈 具平會 姜信浩 張龍 朴容晟부회장이 동창회관 건립기금으로 각 5천만원을 출연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같은 액수의 출연의 뜻을 비친바 있다.

大林産業부회장으로 이미 財界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李부회장은 모교 商大 졸업후 美 덴버大 大學院을 수료, 처음에는 崇實大 大邱大의 강사로서잠시 講壇에 몸담기도 했다. 66년 大林産業 입사를 기점으로 財界에 투신한 李부회장은 그간 同社專務 副社長 社長, 그리고大林工業및 大林엔지니어링 社長을 역임한뒤 현재는 大林産業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李부회장은 5천만원을 출연하면서 모교 발전의 경륜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所任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總長室 亂入사태 대책논의

### 崔회장, 母校 訪問 學生들의 自制도 당부

本會 崔主鎬회장은 지난 28일 상오 趙完圭모교총장을 방문, 24일에있었던 일부 재학생들의 총장실 亂入 농성사태와 관련, 이들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동창회측에서 李聖秀상임부회장, 吳寅泳사무처장 그리고 모교측에서 金鍾云부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오찬을 함께 하면서까지 이어진 이날 모임에서 趙총장은 『知性을 대표하는 서울大 학생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리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하면서 『폭력과 폭언을 한 학생은 서울大 학생도 나의 제자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趙총장은 또 『모교를 주시하고 있을 동문들에게 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주동 학생에 대한처벌은 징계권을 가진 교수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모임에서는이번만은 하교측의 의견을 따라 동창회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학생들의자제를 당부하는 선에서관망키로 했다.

그러나 차후에 이같은 일이 재발할시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결론지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동문들로부터도 큰우려를 나타내는 전화가동창회와 모교는 물론, 십지어 文敎長官실에까지빗발쳤는데 어느동문은『차라리 서울大를 졸업한것이 후회스럽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해줄것을촉구 했다.

## 任員陣 전원 유임

### 冠岳골프 親睦會

본회 會長團및 常任理事(각대학·원 동창회장)들로 구성된 冠岳골프친목회는 지난달 14일 하오6시 뉴코리아 C·C클럽하우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崔主鎬회장을비롯한 임기만료된 임원진 전원을 재선임했다. 이에따라 감사는 金周煥치대동창회장, 간사장은 尹相澈동문(관악회이사)이 앞으로 2년간 맡게 되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열린 제20회 대회에서는 朴奉植전모교총장이 그로스 87·네트 69로 우승을차지했고, 메달리스트는 盧信永전총리가 그로스 89·네트 71로 가슴에 앉았다. 이에따라 朴전총장과 盧전총리의 핸디는 15와 17로 각각 조정되었다.

그외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2위 : 高在清(90·16·74) △3위 : 禹東一(99·23·76).

名譽教授 칼럼

# 五十年의 세월

金 亨 奎
〈36년 文理大卒 · 前師大교수〉

내가 大學을 졸업한 것이 1936年 봄이니 그동안 52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半世記가 넘는 셈이 된다. 그러고 보면 인간사회의 한 世記란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란 느낌이 든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나라는 격동기의 半世記를 살아온 것이다. 온 민족이 變化와 사회가 혼란과 어려움 속을 걸어왔다고 본다. 말하자면 우리는 격동기의 半世記를 살아온 것이다.

나 자신의 인생의 그리고 우선 가까운 예로 내가 졸업했던 京城帝國大學이 서울大學校로 바뀌었다. 나라를 위해 도로 찾았으니 大學도 이름과 제도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건만, 옛날의 서울대학, 또 우리 韓國人을 위해서는 겨우 3분의 1의 학생만 받고 3분의 2는 日本人 학생이었으니 우리를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을 위해 세워진 大學이었다. 다만 우리 민족의 문화를 연구한나는 명목으로 朝鮮法文學科와 朝鮮史學科를 설치한 것은 참 길도 많은 파란과 어려움 속을 걸어왔다고 본다. 말하자면 우리는 격동기의 半世記를 살아온 것이다.

校舍의 자취가 없어진 것만은 아쉬운 느낌이 든다.

어쨌든 그들이 서울에다 大學을 세우게 된 것은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당시 우리의 免疫者들이 겨레의 으로 民間 大學을 세우려는 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설립을 서둘렀고, 또 우리 韓國歷史는물론 우리의 語學 文學까지 日人學者에게 배우게 되니 참으로 이상한 얘기가 된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 당시 이 방면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준비가 돼 있지 못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9~10월 두 달 동안 와서 集中講義를하고 갔으니, 3년 동안 모두 합해서 6개월의 강의만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大學은 오늘과 같이 교수가 강의시간에 꼭꼭 나와서 하고 지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제도였다. 그래서 학교에나 사를 위해 또는 어떤 구실을 내세워 보이코트하는 일이 있을수요, 또 시험도 연기 또는 거부하기가 일수라니, 세상에 이런 대학이 어디 또 있는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내게는 小倉교수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남아있다. 1938~9년부터 日本의 軍國侵略主義가 지을 찾아가 만나보게 되었다. 어떤 글을 적어 문제가 되었느냐의 를음에 言語는 文化的 政治的 재로 武力과 으로 말살할 수 없으니 오늘날 그런 관점은에서 朝鮮語를 폐지함 불기능한일이란 나의 주장을적었다는 내 설명에, 그분은『우리(日本人)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도 그대는 처음 듣다』고 한 말이다. 그리고 그분은 총독부 당국에 朝鮮語폐지가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

眞理는 國境도 民族의 차이도 있을 수 없다. 眞理를 연구하고가르치는 곳이 大學이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의 大學은 어떤가? 眞理를 탐구하는 학문의 길을 말은 高橋교수는 우리의 漢文學만을 대상으로 한 결점을 가졌었으나, 語學의 小倉박사는 유명한 학자로서 우리말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도 많이 하였고 著書도많아 배운 바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아쉬운것은 나의 大學 時節에는 이미 東京大學 교수가 되어 여기에는 1년에 가보면 교수 언제까지 休 講이란 표시가 붙는일이 많았고 學生들은아무 不平 없이 연구실이나 도서관에서 자기가 읽어야 할 책을찾아 공부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우리 大學에선 교수는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으나, 學生들은 제멋대로 정한 행배하게 되고, 內鮮一體 즉 우리 民族抹殺 정책은 우리 언어까지말살하려는 정책까지 쓰게 되었다. 그 당시 어느 師範學校서 朝鮮語 學科를 맡고 있던 나로서는 참으로 참을수가 없었다. 그래서 朝鮮日報에 그의 부당함을 지적한 논문을 쓴 것이 문제되어 퇴임을 당하고 大學으로 그분이 다시 『그리고 그분은 돌부 지가 다르다』고 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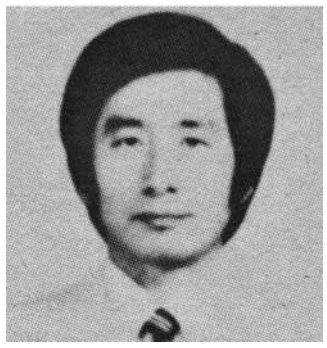
## 學生들 스스로 研究·공부하는 傳統

## 요즘엔 師弟間 対立의 풍토로 변모

學을 高橋교수는 대느 교수 언제까지 休 講이란 표시가 붙는일이 많았고 學生들은아무 不平 없이 연구실이나 도서관에서 자기가 읽어야 할 책을찾아 공부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우리 大學에선 교수는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으나, 學生들은 제멋대로 정한 행동이란 표시가 붙는일이 많았고 學生들은아무 不平 없이 연구실이나 도서관에서 자기가 읽어야 할 책을찾아 공부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우리 大學에선 교수는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으나, 學生들은 제멋대로 정한 행동이란 표시가 붙는일이 많았고 學生들은아무 不平 없이 연구실이나 도서관에서 자기가 읽어야 할 책을찾아 공부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우리 大學에선 교수는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으나, 學生들은 제멋대로 정한 행동이란 표시가 붙는일이 많았고 學生들은아무 不平 없이 연구실이나 도서관에서 자기가 읽어야 할 책을찾아 공부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우리 大學에선 교수는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으나, 學生들은 제멋대로 정한 행동이란 표시가 붙는일이 많았고 學生들은아무 不平 없이 연구실이나 도서관에서 자기가 읽어야 할 책을찾아 공부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우리 大學에선 교수는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으나, 學生들은 제멋대로 정한 행동이란 표시가 붙는일이 많았고 學生들은아무 不平 없이 연구실이나 도서관에서 자기가 읽어야 할 책을찾아 공부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우리 大學에선 교수는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으나, 學生들은 제멋대로 정한 행동이란 표시가 붙는일이 많았고 學生들은아무 不平 없이 연구실이나 도서관에서 자기가 읽어야 할 책을찾아 공부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우리 大學에선 교수는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으나, 學生들은 제멋대로 정한 행

## 同門 수필

## 쓰는 藝術



李 泰 秀
〈67년 文理大卒 · 母校 人文大교수〉

얼마전 교육계에서 갑자기 가훈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적이 있었다. 우리집 애들도학교에서 적어 오란다며 내게 우리집의 가훈은 어떤 것인가를 몇차례나 묻곤했다. 물려받은 가훈이 없으니 새로만들어내는 수 밖에 없었는데, 짧은글 짓기나 마 창작의 노고를 아끼기 위해 기성품중에서「정직하라」또는「근면하라」든지 하는 맹탕같은 글귀를 골라일러주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가훈갖기운동을 생각해낸 분의 입장에서는 듣기 언짢겠지만 가훈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열의를 낼래야 낼 수가 없었다. 아무리내용이 좋더라도 짧은글귀 하나로 우리가족전체의 삶을 묶을 인생수칙 같은 것을 만들어 정말로 심각하게관철하려는 표어만해도 트집을 잡자면, 내가 무슨 별나게 부정직한 종자를 뿌려놓은 것도 아닌데 그 많은 말중에서 특별히 그런 표어를 골라 대대로 물림 가훈으로 삼는단 말인가? 또「근면하라」는 것도 좋지만 매일 새벽같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등교했다가 늦게 돌아와서 숙제하느라고 시달리는 어린것들을 보면 가련한 생각이 들어좀 적당히 놓기도하라고,사람은 모름지기 게으름도 필줄도 알아야 하느니라고 말해주고 싶은것이 인간다운 아비의심정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이렇듯 샘트집 같은 소리를 하는 이면에는 내자신이 주변에 표어나 슬로건같은 금귀가 너무 범람하는데에 신물이 나있다는 사정도 있다. 우리세대에 사정도는 사람들은 일찌기코흘리게 꼬마때부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우리의 맹세」라는 것을 암송한 이래 금혼,사훈,수칙,지침,신조,헌장등등의 내 따라다니는 인생을 살아왔다. 이런 모든것들은 말길이의 차이가 다소 있을 뿐 기본적인 성격은 똑 같은것들이다. 한결같이 간명,단호한 어조로서 토론되기를 용납치 않고오직 숙지되기만을 (사실은 대개 그저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요구하는 고압적인 코 무관할것 같지않다는 생각이다.

이와 같은 느낌과 생각이 있는 한, 가훈이라는 또하나의 표어를 제정하여 액자에 담아 걸어 두고 그밑에서가 족회의를 개최하는 그림에는 아무래도 마음이 끌리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가정교육을 게을리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요즈음의가정교육 부재현상을 누구못지않게 우려하는편이다. 그리고 부모가엄할 때는 당연히 엄하게 교육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있다. 다만 짧은 표어나 슬로건의 힘을 빌리기 보다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의 갈고 다듬을세 심히 헤아리며 어떤것이 옳은 행동인가를깐이야기로 그때그때마다 같이 따져보는 방식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교육을통해서 우리의어린이들은 장차 말은 많을지 몰라도 모든 사물을 볼 때 항상 음양과 장단의 양면을 보면서 자기와는 다른 생각을가진 이웃이 있을 수있다는 고려를 체질화한 우리 세대보다는 민주사회에 더 적합한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몰론 그들이 주인공 노릇을 할 때는 소위 지도층에속하는 인사들도 자신이 신념하고 있는 일면의 진리나 정당성을 표어나 슬로건에 담아 일방적으로 일률적으로이웃에 강요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면 자연히우리처럼 표어나 슬로건의 존재에 대해 공연히 과민한 반응을 하는 친구들도 없어질것이 틀림없다.

※ ※ ※

이와 같은 생각이 있는 한, 가훈이라는 또하나의 표어를 제정하여 액자에 담아 걸어 두고 그밑에서가 족회의를 개최하는 그림에는 아무래도 마음이 끌리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가정교육을 게을리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요즈음의가정교육 부재현상을 누구못지않게 우려하는편이다. 그리고 부모가엄할 때는 당연히 엄하게 교육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있다. 다만 짧은 표어나 슬로건의 힘을 빌리기 보다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의 갈고 다듬을세 심히 헤아리며 어떤것이 옳은 행동인가를깐이야기로 그때그때마다 같이 따져보는 방식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교육을통해서 우리의어린이들은 장차 말은 많을지 몰라도 모든 사물을 볼 때 항상 음양과 장단의 양면을 보면서 자기와는 다른 생각을가진 이웃이 있을 수있다는 고려를 체질화한 우리 세대보다는 민주사회에 더 적합한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몰론 그들이 주인공 노릇을 할 때는 소위 지도층에속하는 인사들도 자신이 신념하고 있는 일면의 진리나 정당성을 표어나 슬로건에 담아 일방적으로 일률적으로이웃에 강요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면 자연히우리처럼 표어나 슬로건의 존재에 대해 공연히 과민한 반응을 하는 친구들도 없어질것이 틀림없다.

※ ※ ※

이 글은 교수와 학생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대립의 관계에 있는 듯 하다. 과거 그들이 우리의 民主化를 위해부쟁하여 오늘이 있게한 그들의 노력을 높이평가하고 싶다. 그러나요즈음 와서 南北學生 會談이라는 천만부당한 주장을 내세우고 남북하게 행동하는 것을보고는 참으로 놀라움과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적어도 理性을가진 사람이면 누구나알 수 있는 일을 고집하는 것은 이 나라를딴 방향으로 革命하자는듯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지게 한다.

또 한편 全 前大統領 一家의 非理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이미 오래다. 그뿐 아니라 요즈음 外信을 통해 외국의 某 비행기 회사와의 金錢 授受說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렇수가 있는가? 그 이상 더 할 말이 없다. 이런 꼴을 보고 正義感 강한 젊은 學生들이 自由·民主라는 근본 제도부터 고치자는 革命的 思想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권력과 금력을 자기 일개인의 영화와 향락을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회와 더 불어 그 개인도 망하고 만다. 그것이 국가 민족을 위해 있기 때문에 고귀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는 홍하고 발전하게 될것이다. 오늘의 우리의大 學社會를 걱정하는 이가 많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되려면 우리 社會 自體가 바로 돼야하며, 그 근본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배계급 즉 권력과 금력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다. 우들이 맑아야 아랫들이 맑다고 한다. 이 격언대로 우리 사회가 위 아래 모두 맑은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 生과死

## 健康교실 ⑮

洪 文 和
〈37년 藥大卒〉
母校 명예교수

小說「꺼삐딴 리」「黑山島」등으로 文名을날린 全光鏞교수가 최근 별세 했다. 향년 70이라니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된다고 할수 있지만 평균만으로는 애석한 감이 든다. 캠퍼스에 테니스를 이 한창일때 거의 매일 舍春苑코트에서 발랄한 모습을 보이고 끝나면 어울려서 혜화동 골목에서 담론풍발하면서 맥주잔을 기울이던 故人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한 것을 생각하면 새삼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된다. 옛사람들은 아는체 하고 인생은 뜬구름과 같아서 모이면 生이요 흩어지면 死라고 하였지만, 生老病死는영원한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현대의학이내장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그 이상 알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알고 있는듯하지만 그와 같은 부분적 지식을합치면 생명이 재현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생명에 관한한 현대과학은「合成의 誤謬」를범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주검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도아직 판연하게 구별할수 없는 경우가 있다. 주검을 어느 시점에서의 event라고 보느냐,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완료되는 process라고보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진다. 보통 지금까지는 심장의 정지로서 주검이라 하고 있지만, 심장이 멎은 후에도정신기능의 중심인 대뇌피질은 4분동안, 생명중추인 腦幹은 8분, 심장의 미세한 전기적활동은 15분간, 瞳孔의藥物에 대한 반응은 30분간, 腱反射는 3시간, 角膜은 12시간, 피부는 48시간, 뼈와 동맥은 72시간동안 생명활동을계속할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주검을 「생명활동이 정지된 시점」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심장이 멎는 시점이 아니고 심장이 정지되고 모든 조직과세포의 생명활동이 완전히 정지될 때 까지의 오랜 시간동안의 경과가 주검의 process이며 그것이 끝나는 시점이 주검의 완성이라고 볼수도있다. 또 이와는 반대로서 「腦死」로서 개체의 주검을판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病이나 外傷등으로호흡과 심장의 박동이정지되면 數分後에는 뇌의 생명 활동도 끝나게 되는데, 심장맛사지, 전기쇼크, 인공호흡등의 구급처치로 심장과 폐장의 활동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또호흡과 맥박은 멎었어도 뇌가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도 있다. 그러므로 주검의판정은뇌의 生死로서 판정을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 행복으로 쳐서, 주검이라는 말 대신「考終命」이라는 표현을썼다. 주검이란 天壽를다하지못하고 病 때문에 고통하면서 本意 아니게 생명이 끊어 지는 것을 말한다.

어찌되었던지간에 살아있는자는 특별한 自殺의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長壽하기를 원하는 것이 人之常情이다. 사람의 天壽라고 할까, 限界壽命은 과연 얼마나 될까가 궁금한데동물의 한계수명은 곡격이 완전히 형성될 때까지의 成長期間의 5百歲에 불과하며 數의 終末이다. 그러므로 1백20세가 지나서도 죽지 않으면 이를 失歸의 妖怪고 한다」라고 하였다. 또 옛날의 中國醫學「延壽書」에는「壽本四萬三千二百餘日 卽一百二十歲」라는 귀절이나온다.

秦始皇은 長生不老를 갈망하여 蓬萊島에서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탐색단까지 파견하였지만 49세에 죽은것을 보면 生과 死처럼 신비하고 오묘한 것이 없다. 2천년이 지난 오늘날도 사람들은 長壽法을 찾느라고 야단들이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長壽의 바결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된다」가 아닐까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 테라리움栽培와 管理

金 基 善
〈78년 農大卒·母校農大교수〉

테라리움을 만든다는 것이 高度의 技術을 요구하는 어려운 작업처럼 느껴지기가 쉽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 盆栽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보통 盆定植 또는 栽培용 테라리움의 경우에는 한株를 심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여러종류의 식물을 감이 심음으로써, 심지어는용기내에 작은 景觀을조성시킬 수도 있다.

아무래도 盆定植에비해서 테라리움의 경우는 손놀 넣어서 작업할 수 있는 입구가비교적 제한되어 있거나, 특히 목이 좁은 병을 이용할 경우에는 손의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음의 몇가지 도구가필요하게 된다.

①청소도구—긴 철사 끝에 스폰지등을 끼운 것이나 미술용 붓등으로 용기내의 흙, 먼지 등을 닦을 때 사용.

②깔대기—흙을 넣을 때 원하는 자리에다효율적으로 흙을 분배시키고 흙이 흩어지지않게 하기위해 사용.

③삽—긴 철사나 나무끝에 작은 티스푼등을 매단 것으로써 흙구멍을 팔때 사용.

④집게—식물을 집어 넣을 때 사용.

⑤흙다듬이—정식후주위의 흙을 다지기 위해 사용.

⑥관수기구—보통 세 탁용 분무기를 사용한다.

⑦전정기구—웃자라거나 보기 좋지 않은부위를 잘라주기 위한것으로써 나무끝에 면도날을 매단다. 만일 용기가 아주큰 경우라면 일반발이나화분재배시 사용하는 일반도구들을 사용한다. 이상의 도구와 앞의 章에써 언급한 식물체 등, 투명 테라리움용기, 재배용토, 숯, 자갈, 망사등이 준비되었으면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해 작업에 들어간다.

◇테라리움 제작시 준비물

①우선 용기안에 조성되게 될 새로운 모습을 머리속에 그리며 도식화한다.

②용기의 밑바닥에 자갈이나 스치로폴 등의 배수층을 깐다.

③배수층위에 가는망사나 헝겊등을 깔아서 위에 놓일 숯이나 재배용토가 새지않게한다.

④숯을 깔아서 목탄층을 형성시키는데, 되도록 바깥 유리벽에 닿지않게하여 외부로의 美觀을 해치지 않도록한다.

⑤잘 말린 고운 배용토를 깔때기나 사용하여 일은 종이등을 사용하여 먼지가 용기내에서 지않게 서서히 景觀의美를 살리기 위하여 이때 되도록 경사나 높낮이를 두는것이 좋다.

⑥삽으로 토양을과 식물을 자리를 마련한다.

⑦재배용화분에서 식물을 꺼낼 때 되도록 뿌리가 상하지 않고흙이 많이 붙어있게 하여 물체의 점착을 도와준다.

⑧나머지 식물들도 마찬가지 요령으로 심는데, 맨 처음에는 대개 키가 가장 큰 초점이 되는 것부터 식기 시작한다.

⑨수태등으로 사이사이에 노출된 토양위를 덮어주어서 미관상으로도 좋을뿐 아니라, 수분증발을 감소시키게한다.

⑩뿌리둘레의 흙을흙 다듬이나 손으로 두들겨서 뿌리의 활착과식물체의 점착을 도와준다.

⑪삽으로 토양을 파 헤쳐 놓는다 치더라도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주검이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한 평생의 종말에 가서 주검의 필요한 것은 하루의 종말에 잠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주검을 한평생의 睡眠이라고보아 세상을 떠나는 것을「永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또 주검에는 병이나뜻하지 않은 재난 때문에 죽는 事故死와 자연적으로 노쇠하여 죽는 自然死와의 두가지가 있지만 과연아무병도없는 자연사가있느냐에 대해서는 문제가있다. 그러나 우리조상들은 天壽를 다하고 自然死하는 것을 인생 최 상 의 복으로 쳐서, 주검을 어느 시점에서의 event라고 보느냐,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완료되는 process라고보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진다. 보통 지금까지는 심장의 정지로서 주검이라 하고 있지만, 심장이 멎은 후에도정신기능의 중심인 대뇌피질은 4분동안, 생명중추인 腦幹은 8분, 심장의 미세한 전기적활동은 15분간, 瞳孔의藥物에 대한 반응은 30분간, 腱反射는 3시간, 角膜은 12시간, 피부는 48시간, 뼈와 동맥은 72시간동안 생명활동을계속할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주검을 「생명활동이 정지된 시점」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심장이 멎는 시점이 아니고 심장이 정지되고 모든 조직과세포의 생명활동이 완전히 정지될 때 까지의 오랜 시간동안의 경과가 주검의 process이며 그것이 끝나는 시점이 주검의 완성이라고 볼수도있다. 또 이와는 반대로서 「腦死」로서 개체의 주검을판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病이나 外傷등으로호흡과 심장의 박동이정지되면 數分後에는 뇌의 생명 활동도 끝나게 되는데, 심장맛사지, 전기쇼크, 인공호흡등의 구급처치로 심장과 폐장의 활동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또호흡과 맥박은 멎었어도 뇌가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도 있다. 그러므로 주검의판정은뇌의 生死로서 판정을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 盆栽와 같으나 여러植物 混植해도 좋아
## 灌水는 2개월, 液肥 6개월만에 주어야

⑧손이나 집게등으로 식물체를집어넣어 미리 심는다. 파놓은자리에다 심는다.

⑨뿌리둘레의 흙을흙 다듬이나 손으로 두들겨서 뿌리의 활착과식물체의 점착을 도와준다.

⑩나머지 식물들도 마찬가지 요령으로 심는데, 맨 처음에는 대개 키가 가장 큰 초점이 되는 것부터 식기 시작한다.

⑪수태등으로 사이사이에 노출된 토양위를 덮어주어서 미관상으로도 좋을뿐 아니라, 수분증발을 감소시키게한다.

⑫세탁용 분무기를사용하여 식물체나 용기벽에 묻어있는 흙이나 먼지등을 씻겨내려주며 관수를 한다.

⑬통상 습한 토양으로 시작하였을 시는 4ℓ 혹은 50cc의 물을, 그 이상 큰 용기에대하여는 100cc정도의물을 주어서, 토양이 너무 습하거나 건조하지 않게한다.

⑭관수후 약 1—2시간 동안은 뚜껑을열어놓아 식물체에 있는 수분이 속히 증발하게끔 해준다.

이상의 작업이 끝나면 바라던「나의테라리움」이 완성된 것이다. 처음부터 완전작품을만든다는 것은 妄想이다. 여러번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서야만 원숙한 실력이 쌓아지게 되고 훌륭한 테라리움을 만들 수 있다.

이상으로 완성이 되면, 보통 밀폐된 용기의 경우 2개월에 한번씩 관수를 실시하며, 약 6개월에 한 번씩 액제비료를 사용하여시비하나, 영양상태가 좋아 식물체가 너무 웃자라는 경우가 없도록 토양내의 영양분은 생육에 필요한 최소에머물러있게 하는 것이좋다. 용기내 유리벽면이 김으로 인해 자주 희미하게 보이게되면 뚜껑을 열어주어 수분을 좀 더 증발시켜야한다. 간혹 식물이 웃자라거나 상한 부위가 발생하게 되면 이따금씩전정을 하거나 건전한새 식물로 移植을 하는것이 좋다.

〈끝〉

▲申泰煥(36년 商大卒·本會理事·前母校總長)‖최근 월간 엔터프라이즈社부설 韓國經濟社會硏究所會長에 취임。

▲徐燉珏(46년 法大卒·法및社會哲學한국학회장)‖4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이태리 보로나大에서 열린 法및 사회철학국제학회의 이사회및 세미나에 참석하고 귀국。

▲孫寶基(47년·文理大卒·前延世大교수)‖5월 21일 서울프레스센터 멤버스클럽에서 후학들로부터 정년퇴임기념「고고인류학논총」을 받았다。孫동문은 서대문구연희동에 「韓國先史文化硏究所」(전화 333—1333)를 개설。

▲金聖悅(48년 文理大卒·東亞日報社長·文理大政治學科동창회장)‖6월 9일 서울 세검정에 있는 하림각에서 올해 정치학과 총동창회를 개최。

▲金魯鉉(48년 齒大卒·韓國作曲家會회장)‖6월 25일 오후 7시30분 한국작곡가회 창립 15주년기념 작품발표회를 세종문화회관소강당에서 개최。

▲金永敦(49년 師大卒·前同窓會長·大韓三樂

▲卓熙俊(49년 法大卒·前成均館大교수)‖지난 2월 24일 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정년퇴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가 주최한 퇴임식에서 기념논문집을 헌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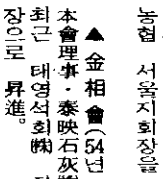
▲林光洙(52년 工大卒·本會理事·林光上建㈜會長)‖忠北協會회장으로 6월 11일 서울앰버서더호텔에서 충북출신 국회의원 및 榮轉人事들을 위한 축하회를 개최。

▲李春林(53년 工大卒·本會理事·現代重工業㈜會長)‖韓·스웨덴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6월 16일 피터슨 스웨덴공업성장관등 양국관계인사들이 참석한 韓·스웨덴經協委합동회의를 개최。

▲徐元宇(53년 法大卒·母校法大교수)‖韓國公法學會회장으로 7월 1~2일 이틀간 全北大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韓國憲政40年」을 주제로 88년도 학술대회를 개최。

▲朴燦烈(53년 商大卒·㈜寶盃社長)‖최근 주식회사 寶盃사장에 취임했다。朴동문은 농협 서울지회장을 역임。

▲高永復(54년 文理大卒·母校社會大교수)‖5월 28일 母校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후배들이 마련한 회갑기념논문집「사회운동과 사회변동과 사회의식」의 증정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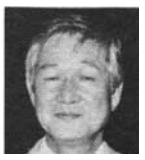
▲金相會(54년 工大卒·本會理事·泰映石灰㈜社長)‖최근 태영석회㈜ 전부에서 사장으로 昇進。

▲姜泰成(54년 美大卒·梨花大美大學長)‖6월 24일 과천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2회 金世中彫刻賞을 受賞。

▲申東植(55년 工大卒·大韓

▲車載浩(56년 文理大卒·母校學生生活硏究所長)‖6월 16~17일 내장산호텔에서 전국학생생활연구소장 협의회를 개최。車동문은 전국대학학생생활연구소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다。

▲權純福(56년 法大卒·地方行政硏究所理事長)‖6월 25일 경기 용인군 내사면에서 西獨 한스자이델재단후원으로 「농촌개발 현지교육」을 실시。



▲鄭東均(56년 齒大卒·本會理事·母校齒大교수)‖前齒協학술담당부회장으로 종합학술대회와 함께 89년 4월 26일~30일 서울에서 개최

▲金命年(57년 工大卒·本會理事·서울地下鐵公社)‖6월 14일 열린 제14차 아세아태평양치과의사회의 조직위원장으로 被選。

▲李炫馥(59년 文理大卒·母校人文大교수)‖최근 전국 40여개대학의 언어교육연구소연합회를 결성하고 초대회장에 被選。

▲韓敏洪(64년 工大卒·浦項工大교수)‖최근 미국의 산업공학분야에서 세계적인 산업공학연구소로부터 권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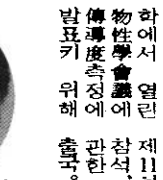
▲趙靑遠(77년 工大卒·科技處技術政策室係長)‖지난 83년 신시내티대

# 動靜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職場을 옮기셨거나 職位의 변동을 비롯, 개인의 활동 및 업적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세하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읍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읍니다. 많은 이용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電話 : (702) 2233-5

▲李忠熙(58년 文理大卒·本會理事·韓國標準硏究所소장)‖6월 13일 스웨덴 우메아대학에서 열린 제11차 유럽熱物性學會議에 참석, 「구리의熱傳導度측정에 관한 논문」을 발표키 위해 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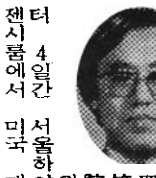
▲李重根(58년 法大卒·辯護士)‖최근 서울서소문동 유원빌딩 1105호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변호사업무를 개시。李동문은 청와대 법무수석비서관을 지냈다。전화 779—0111。

▲姜碩熙(60년 音大卒·母校音大교수)‖최근 서울올림픽 88 때 선보일 「프로메테우스」라는 제목의 「聖火音樂」인 컴퓨터음악을 서독 베를린工大 일렉트릭스튜디오에서 녹음편집을 끝냈다。이 음악은 올림픽사상 최초로 컴퓨터와음악의 만남이 될 것이라고。

부가 수여하는 국가최고공로훈장인 레오폴드2世大十字훈장을 받았다。

▲姜慶植(61년 法大卒·本會理事·前財務部長官)‖최근 果川市中央洞 고려빌딩 410호에 국내의 경제동향과 경제정책의 흐름을 파악키 위해 사무실을 개설。

▲尹世榮(61년 法大卒·本會理事·㈜泰榮會長)‖대한건설협회 88년도 서울시지부 임시총회에서 支部長에 被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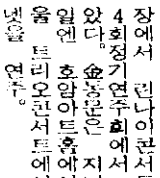
▲金安濟(62년 文理大卒·母校環境大學院長)‖4월 13일부터 4일간 서울하얏트호텔리젠시룸에서 미국 매사추세츠工大건축 및 도시계획학부와 공동으로 「올림픽이 도시개발전략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

▲朴弘植(62년 法大卒·本會理事·特許廳長)‖6월 9일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특허연수과정에 강사로 참석 「技術開發과 技術移轉促進에 있어서의 特許의 役割」이란주제로 강연하기 위해 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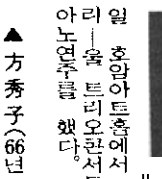
▲李惠星(62년 師大卒·梨花女大學生生活指導硏究所長)‖최근 열린 전국대학 학생생활지도연구소장협의회총회에서 제6대회장에 被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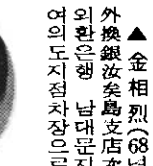
▲林東昇(62년 商大卒·本會理事·三星經濟硏究所소장)‖7월 1일 오후 2시 동방생명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연구소 창립 2주년을 기념, 「국제화시대의 企業經營戰略」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



▲金明珍(65년 音大卒·피아니스트·母校音大講師)‖5월 23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소리—울 트리오콘서트에서 피아노연주를 했다。



▲方秀子(66년 農大卒·피겨스케이팅 國家代表코치)‖6월 12일 제1회「銀盤의 잔치」를 잠실 경기장에서주최。



▲金相烈(68년 商大卒·外換銀汝矣島支店次長)‖최근 외환은행 남대문지점차장에서 여의도지점차장으로 轉補。

▲李會晟(69년 商大卒·에너지經濟硏究院長)‖최근 호텔新羅에서 열린 韓國資源經濟學會정기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被選。

▲黃斗英(69년 行政大學院卒·明知實專교수)‖6월 15일 미국교육제도 시찰차 출국。黃동문은 행정대학원동창회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다。



▲權寧珉(71년 文理大卒·文學評論家·母校人文大교수)‖5월 7일 檀學會가 제정한 제7회 斗溪學術賞수상자로 종로구신문로 한글회관에서 受賞。수상작품은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연구」

▲金太業(72년 工大卒·㈜기운데크社長)‖최근 ㈜韓國海事技術의 새임원진구성에 따라 同硏究所長으로 취임。

장에서 린나아콘서트밴드 제4회정기연주회에서 지휘를맡았다。金동문은 지난 5월 23일엔 호암아트홀에서 소리—울 트리오콘서트에서 클라리넷을 연주。

# 師範大學 同窓會長 朴智洙 동문

新任 會長을 찾아서

## "矜持와 使命感 갖도록 노력할터"

## 平生을 敎壇에 바친 中等교육의 산證人

『못밭에 重賣을 말고 어깨가 무겁습니다。그동안 歷代 會長님, 특히 전임 朴冠鎭 회장께서 會員名簿를 혁신적으로 발간하는 등 많은 일을 하셨읍니다。때문에 그 뒤를 이어 반아 동창회를 더욱발전시켜야겠기에 중압감을 느낍니다。』

지난 5월28일 열린 師大同窓會 제34차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된 朴智洙동문(50년歷史科卒·한국지도자육성 장학재단 이사장)은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敎育界를 선도하고 있는 師大 동문들이 차지하고 있는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차대한 현 시점에서 이들의 矜持와 使命感을 더욱 북돋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朴회장은 50년 모교 師大 졸업후 곧바로 敎育界에 투신, 지난해 8월 永登浦女高 교장을 끝으로 정년퇴임할 때까지 외곬수로 敎育一線을 지켜온 우리나라 中等敎育界의 산 證人이다。

朴회장이 그동안 거친 학교로는 梨花女高 서울師大附高 京畿高교사, 東大門女高 京東高교감, 梧柳女中 龍山中 永登浦女高 교장을 역임했으며 교육행정직으로는 서울市敎委 獎學士 研究官 敎育研究院長 中等敎育課長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회장에 취임하면서 會費가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계획대로 걷힐런지 큰걱정입니다。그렇다고 내가 財力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죠。부지런히 다니면서 동문들을 만나고 電話도 하고 특히 慶弔事에는 열심히 찾아다닐 작정입니다。』

그의 부지런함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그러기에 그는 항시 현장확인 주의가 몸에 배어있다。

67세의 나이가 저짓말 같아 健康비결을 물어봤다。

『水泳 登山을 꾸준히 하고 있읍니다。수영은 市敎委 中等敎育課長으로 있을때 中·高배정을 컴퓨터로 했는데, 배정에 불만을 품은 學父兄들이 거의매일이다싶이 찾아와 항의하는 바람에 이로인한 스트레스와 체력에 한계를 느껴 그야말로 죽기살기로 중급반까지 배웠읍니다。登山은 매일아침 약수터를 오르내리고 있고 土曜日에는 1박2일로 원거리 산행을 빠짐없이 하고 있읍니다。』

그는 전국의 높은산은 거의 빠짐없이 다녔다고 한다。

梨花女高 재직때부터 취미로 즐겨온 寫眞실력은 韓國寫眞家協會제11회전서 특선을 할정도로 프로급 수준。사진에 매료되어 전국을 누비고 다니다 간첩으로 오인받은 적도 있으며, 地下道에서 자고 있는 지겟꾼을 찍다가 작대기로 얻어맞을뻔한 에피소드도 있다。

가족으로 부인 方英姬여사(64)와의 사이에 4男1女를 두고 있는데 長男(桂男)이 70년 工大를, 子婦(金賢姬)가 70년 師大를 졸업하여 함께 서울大 家族을 이루고 있다。

---

▲鄭學臣(50년 商大卒·全南大명예교수)‖최근 전남대 경영대교수에서 정년퇴임 뒤 명예교수에 추대。鄭동문은 광주, 전남지역 商大동창회 회고분。

▲韓國海事産業연구소가 한국해사기술로 바뀌짐에 따라 同社이사장으로 취임, 同社는 海運·造船·水産·港灣·保險등 제반문제를 연구조사하고 있다。

▲金致善(51년 法大卒·本會理事·崇實大總長)‖6월 16, 17일 부여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를 향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주제로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邊衡尹(51년 商大卒·母校社會大교수)‖서울이코노미스트를 28일 여의도63빌딩코스모스홀에서 「국제경제사회의 변화추이와 우리의 對應」이란 주제로 제13회 경제토론회를 개최。

▲廉東禧(55년 法大卒·本會理事·換銀信用카드社長)‖6월 27일 외환은행이 무를 독립시켜 설립한 換銀信用카드社長에 내정됐다。廉동문은 外換銀理事였다。

▲李御寧(56년 文理大卒·本會理事·文學評論家·梨花女大교수)‖6월 28일 오후4시프레스센터에서 열린 韓日문화교류기금주최 韓日문화강좌에서 「春香傳과 忠信藏을 통해서본 한일문화의 비교」란주제로 강연。

▲韓國海事産業연구소(韓國海事技術社長)‖최근 理事·韓國海事技術社長)‖6월 25일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에 임명되었다。

▲蘇光熙(57년 文理大卒·母校人文大교수)‖6월 18일 梨花女大에서 「北韓의 대한 비관적 검토」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蘇동문은 哲學研究會 회장직을 맡고 있다。

▲朴肯植(58년 文理大卒·本會理事·韓國動力資源研究所연구위원)‖6월 9일 벨기에정

▲李祥根(57년 商大卒·本會理事·韓美銀行長)‖6월 29일 취임1주년을 맞아 全南장흥군의 낙도어린이 43명을 서울로 초청, 서울시내 관광및 선물을 전달。

▲李萬用(59년 商大卒·本會理事·金星半導體社長)‖6월 27일 합작제휴선인 미국 A T&T社와의 업무협의를 마치고 귀국。

▲崔大權(61년 法大卒·母校法大교수)‖한국사회이론학회장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자유와 우리사회」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

▲安承喆(60년 商大卒·本會理事·中小企業銀行長)‖6월 2일 지방중소기업 및 공단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키 위해 安山과 大邱에서 중소기업자와 간담회를 개최。

▲韓瑾煥(64년 商大卒·本會理事·大宇證券(株)專務)‖6월 18일 인본주권학회의 초청으로 일본대학강당에서 현지 증권, 금융관계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기업금융과 증권시장」이란 제목으로 特講키 위해 출국。

▲李弼坤(65년 商大卒·本會理事·三星物産(株)社長)‖6월 4일 삼성과 캐나다의 합작사인 캐나다트레이드그룹의 정기이사회에 참석코 귀국。

▲金正秀(65년 音大卒·KBS交響樂團)‖6월 29일 국립극

---

▲李光秀(83년 師大卒)군과 金英美양‖7월 9일午後2시。

▲崔昌植(88년 經營大學院卒)군과 李善洙양‖7월16일 午後3시。

▲許湜(84년師大卒)군과 金淑姬양‖7월 23일 午後2시。

▲朴奉植(55년 文理大卒·前母校總長)‖長男 勳卓君·金立三씨長女 素任孃 6월26일 午後5시 梨花女大중강당에서 결혼。

## 掲示板

### 結婚

#### 同窓會館 冠岳홀

▲姜善弘(85년 工大卒)군과 康惠貞(86년 自然大卒)양‖7월 2일 12시30분。

▲白勝寓(86년 音大卒)군과 朴環雅(86년 音大卒)양‖7월 2일 午後2시。

▲崔岐柱(84년 工大卒)군과 李美惠양‖7월 2일午後3시30분。

▲朱尙明군과 金玄珠(82년 音大卒)양‖7월 3일午後2시。

▲李光秀(83년 師大卒)군과 金英美양‖7월 9일午後2시。

▲崔昌植(88년 經營大學院卒)군과 李善洙양‖7월16일 午後3시。

▲許湜(84년師大卒)군과 金淑姬양‖7월 23일 午後2시。

▲朴奉植(55년 文理大卒·前母校總長)‖長男 勳卓君·金立三씨長女 素任孃 6월26일 午後5시 梨花女大중강당에서 결혼。

▲全昭映(84년 音大卒·첼로演奏家)‖6월 11일 세종문화회관소강당에서 관소강당에서 한국무지카수최로 첼로독주회를 가졌다。金동문은 미국 보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과정중。

▲全美映(78년 音大卒·피아니스트·韓國敎員大교수)‖6월 11일 세종문화회관소강당에서 동생 金照映(音大84년卒)동문의 첼로독주회에서 피아노를 演奏。

▲閔鳳基(83년 環境大學院卒·㈜天辰엔지니어링副社長)‖최근 전문기술용역업체인㈜天辰엔지니어링 부사장에 취임。

## 新刊 안내

※이 欄은 同門들께서 펴낸 新刊서적을 紹介해드리기 위해 마련했읍니다. 새로 저술한 著書를 本報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읍니다.

## □韓國 맛있는 집 777店

— 洪性裕著

52년 法大卒. 文壇의 중견作家이면서 伯坡라는 筆名으로 紙上에 鄕土味覺순례를 계속하고 있는 洪동문이 88년개정판으로 出刊한 著書이다. 전국에서 음식잘 만들기로 유명한 7백 77집을 직접 순방하며 소개하고 있는 음식집 순례서이다.

4년여의긴 시간을 南船北馬로 전국 곳곳의 특색있고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심혈을 기울여 소개한 著者의 끈질긴 집념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 여행을 할때나 부득이출장으로 지방에 나들이를 할때마다 음식이입에 맞지않아 고역을겪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공통으로 느끼는 일이다. 이제 이 한권의 책만 손에 들고떠나면 전국 어디에 간다해도 취향에 따라음식을 맛볼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먹는다는 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을 것같다.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쁨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듯,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최대의 행복이며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임수도 있다. 각 지역따라 토속음식만을 소개한 이 책이 있기에 우리들 口味는 더욱 돋구어질 것이다. 제 맛을 찾아 훌훌 털고 일어나서 찾아가 먹을 줄 아는 생활의 지혜를 찾아보자. (汎洋社刊 값4천원)

## □나그네의 새벽

— 尹鍾爀詩集

57년 文理大출신의詩人이며 弘益大교수로재직하고 있는 尹동문이 네번째 詩集으로 6년동안 문예지등에 발표되었던 작품을 모아 엮어놓았다.

評者들은 尹동문의작품을 살아숨쉬는 知性의 불꽃같은 肉聲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의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생활세계이며 참삶(실존)이야말로 詩가현전하는 시간이자 공간일수밖에 없다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의 詩는 생활너머의 어떤이데아거나 현실비판적인 가치관념(이데올로기)일 수 없고 생활 그자체가 詩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 詩人은 결코 그의 詩가 훌륭한 작품이고자 노력하지 않으며, 그럴만한 모델같은 것을 아예 詩作에서준비하지도 않는 한결같이 평속하기만한 일상의 커뮤니케이션 언어들로 독자를 놀라게하거나 감탄스럽게 또는 낯설게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런 표현상의 기교를 重要視하지 않고 마치 일상의 생활복 차림으로 의식에참여하는 것처럼 너무도 일상적이다. 그가 사용하는 매끈하거나 고르지도 않은 詩作上의 표현 계보같은 것을 일체 배제하고 있다. (弘益出刊版刊 값2천원)

## □興하는경영, 亡하는경영

— 吳龜鎭著

69년 工大造船工學科卒. 韓進그룹의 大進海運과 大韓造船公社常務를 역임하면서 私企業에서 20년가까이 중견경영자의 위치를 거치는 동안 직접 경험한 것들을 근거로 엮은著書이다.

내부에서 본 企業經營이란 副題를 달고있는 이 책은 8장으로 꾸며져 있으며, 화이트칼라 위주의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이 아닌불루칼러가 있는 생산업체의 관리자로부터 기업가까지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리기법보다는 근본적이고 의식적인 문제의 발견과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경영상 대두되는 문제와 해결책이 크게 다를수 있고 同種企業일지라도 기업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전혀 다른 원인과 처방이 요구되는 수가 많은데도 기업외부의 의견들은거의 일반론에 치우치고 있으므로 문제해결에별 도움을 못주고 있는專門書들이 많다. 특히기업내부의 산체험에서나오는 기업가나 경영인의 의견을 듣기 어려운 요즘, 이 著書는이 방면에 크게 도움을줄 것이다. (汎文社刊 값3천5백원).

## □세계 박물관 산책

— 金守經著

63년 齒大卒. 現母校齒大교수로 재직하고있는 金동문이 외국유학시절을 비롯하여 학술회의등 그밖의 일로 外遊하면서 20개국 60여도시를 순방하는 틈틈이 그나라의 박물관을 찾은 것이 계기가 되어 한권의 책으로 엮어져 나오게 된 것이 이 著書이다.

이탈리아를 비롯 15개 선진국의 생기 넘치는 대학의 모습을박물관의 특징을 학술적이 아닌 기행수필스타일로 엮여져 있다.

외국의 풍물과 대학가의 분위기, 그나라의 역사가 담겨진 박물관을 돌아본다는 일이그렇게 한가하고 쉬운일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흔로 외국의 文化街를, 돌아보는 일이란 여간한 끈기와 계획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아닐 수 없다. 金동문의 지구력을 높이 살만하다. (文學精神社刊 값3천원)

## □韓國의 住居民俗誌

— 金光彦著

61년 師大卒. 이어文理大를 66년에 나와仁荷大박물관장으로 재직하며 民俗學을 전공하고 있는 金동문이 傳統韓屋과 집터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著書.

지난 70년부터 87년까지 전국을 돌며 벌여온 현지조사결과를답은 것으로 「大宇學術叢書」로 발간됐다. 이책엔 종전의 책과는 달리 집의 기능적 측면인 집안팎에서 이루어지는생활과 초점을 맞추고있는 것이 특징. 집은인간의 사상이나 믿음, 인생관등이 스며들기 때문에 생활양식이나 습에 따라 외형도 바뀔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 家庭閑談

# 後悔없는 아내되어

姜淑卿 女史

李俊佑 동문(新大院卒) 夫人

미풍에도 나부끼는 거미줄처럼 결혼 25년은 며느리와 아내, 엄마로서 긴장의 연속이었다.

남편은 직장이 직장이니만큼 늘 시간에 쫓기고 쫓기는 신문기자라 사생활을 보장받기는 이미 틀려버린 분위기였고, 아침엔 버릇이 들었고, 아침엔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습성이 되어버렸다.

명랑하시고 자애로우신 시어머님이 안계셨이들을 키워주시고, 자상하게 보살펴 주신걸 생각하면 내 자신이복에 겨운 여인임을 새삼 깨닫게 되고 감사내와 노력없이는 이룩할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남편에게 진심으로 머리가 숙여진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남편의 학위 취득은 우리 다섯식구들이 참아준 희생의 댓가라면 댓가일 것이라고 자부도 해본다.

신문기자에게 시집을 간다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말리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나였지만 5년전 막내 여동생이 J신문사 기자와 짝을 짓게되어 우리 자매의 숙명인가 싶어 실소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또 우리집 둘째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 나서겠다는 기자지망생이다. 자기는 아버지의 힘든 직장생활과 가족들의 기다리는 생활에 질력이 나지 않았느냐고 극구 말려 보았지만 막무가내다.

그러나 남편은 한편으로 흐뭇해 한다. 벌써 커서 아빠의 뒤를 잇겠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한가 보다.

지나온 뒤를 돌아볼 때 나는 여지껏 별욕심없이 살아 왔다고 생각한다. 식구들은 건강하고 남편은 직장생활에 충실했으며 면학의 열매까지 맺었으니 모두 감사할 뿐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있다. 남편이 신앙안에 합쳐지는 일이며 아이들이 공부 마치고 좋은 배필맞아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에 항상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너무나도 평범한 소망인것 같지만 우리가 정의 진실한 행복은평범함속에서 찾아진다는 확신은 에나 오늘이나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좌우명이다.

# 同窓會費 납부하여 母校支援과 奬學사업에 寄與합시다

## 年會費 내주신분

(新任理事 1·30~6·20일까지
一般會員 5·20~5·30일까지)

※ 人名밑의 숫자는 각同門들의 母校졸업 연도입니다.

### 會長團

▲副會長 金道昶=50만원

### 理事

◇工科大學

▲白樂晨㊾ ㈜도화지질대표
▲韓亨洙㊹ 삼성코닝㈜사장
▲姜信珪㊽ 현대농음대표
▲白士益㊷ 동아광업콘설탄트대표
▲張起柱㊽ ㈜경방전무
▲姜義植㊿ 도양건축기술연구소대표
▲朴昌淳㊽ 강신산업㈜사장
▲朴允緖㊻ 연암전문대학장
▲尹鍾求㊻ 선일기업㈜사장
▲白宗基㊽ 태광특수기계㈜전무이사
▲白德鉉㊼ 포항종합제철부사장
▲丁庚鎭㊼ 종로학원원장
▲韓泰熙㊿ 력키엔지니어링㈜사장
▲吳明㊻ 체신부장관
▲金相會㊹ 태영광업㈜전무이사
▲鄭炳日㊹ 봉명㈜사장
▲洪性一㊽ 서울대공대교수
▲李圭昌㊻ 현대건설㈜부사장
▲孫海東㊽ ㈜대농사장
▲李喜鍾㊼ 한국코트렐공업사사장
▲李相鎬㊿ 서호전기대표
▲朴贊敏㊸ 력키엔지니어링㈜이사
▲趙龔熙㊽ 한국산업리스㈜부사장
▲成樂常㊶ 동아건설㈜부사장
▲明泰鉉㊿ 송원기업사장
▲徐柱仁㊷ 삼성전기㈜대표이사
▲盧海圭㊼ 건설기술교육원
▲姜學模㊾ 현대정공㈜부사장
▲朴相鎬㊼ 력키유화㈜사장
▲姜學淳㊾ 국일증권㈜상무
▲李善一㊺ 동양철관사장
▲姜晋求㊼ 삼성반도체통신㈜사장
▲朴仁均㊶ 다래무역㈜회장
▲金勳㊼ 제네랄일렉트릭㈜부사장
▲玄喜憲㊾ 최신물산㈜부사장
▲金鮮東㊸ 쌍용정유㈜부사장
▲桂燐㊿ 동국제강㈜부사장
▲金德洙㊺ 장천화학공업사대표
▲徐立圭㊶ 우림콘크리트공업㈜대표이사
▲孫昌根㊸ 성진산업㈜대표이사
▲李鍾玟㊶ ㈜유진기연사사장
▲林炳珠㊻ 남경상사사장
▲崔元甲㊿ 최신물산㈜대표이사
▲李運珩㊾ 부산파이프사장

◇農科大學

▲金相敎㊼ 삼양염업㈜사장

◇文理科大學

▲明宜植㊽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朴天緖㊻ 농진청맥류연구소장
▲徐仲一㊻ 한국식품개발연구원부원장
▲尹梧燮㊷ 한국농지개발연구소소장
▲李在起㊼ 국제종합건설㈜전무
▲李仁鎬㊽ 산림청임업연수원장
▲吳在晶㊾ 홍성사료공업㈜전무
▲金秉煥㊼ 홍농종묘육종연구소
▲金寅煥㊶ 한국종묘협회회장
▲安致榮㊼ 력키건재납부센타사장

▲金榮作㊹ 동북아문화연구원장
▲洪鍾華㊶ 홍은제지사장

▲金學鎔㊿ 대우투자금융사장
▲金斗其㊼ 서울시산업경제국상공과장
▲金永奇㊽ 롯데칠성이사
▲金正俊㊿ ㈜불티나종합상사대표
▲金昌浩㊹ 현대증권감사
▲閔內國㊸ 변호사
▲朴永泰㊺ 한일은행상무이사
▲孫燿鎬㊺ 총무처차관
▲孫鍾輿㊹ 중앙공무원교육과장
▲宋敏鎬㊾ 제일은행대전지점장
▲申東元㊼ 외무부차관
▲柳基範㊺ 대우정밀㈜사장
▲柳興洙㊷ 전국회의원
▲尹一豫㊻ 대법원판사
▲尹元錫㊸ 힐튼호텔사장
▲李輿熙㊺ 대우그룹부회장
▲李晟圭㊻ 제일은행감사
▲李仁和㊽ 한양증권상임고문
▲李宇鎔㊸ 동화약품사장
▲安秉洙㊽ 변호사
▲張世綱㊽ 한양투자금융사장
▲柳寅用㊽ 대한전기협회사무국장
▲金容喆㊿ 전대법원장
▲崔秉烈㊸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
▲柳哲鎬㊻ 한성투자금융㈜사장
▲安又萬㊿ 서울형사지법원장
▲金聖基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宋彦鍾㊿ 전내무부차관
▲申昌浩㊺ 우일문화사회상
▲李洪九 롱일원장관
▲金寶鎭㊸ 변호사
▲李珍雨㊻ 국회의원
▲李海遠 한국우드워드딕커스사장
▲金明洙㊼ 제일은행상무이사
▲張富雄㊺ 동방유량㈜전무이사
▲尹世榮㊶ ㈜태영회장
▲周敏會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李丙基㊷ 농림수산부차관
▲丁海昌㊿ 법무부장관
▲黃善鑑㊽ 대법원판사
▲許南薰㊷ 상공부차관
▲林采洪㊻ 일채홍법률사무소
▲李文浩㊹ 호남정유전무
▲李明熙㊼ 대법원판사
▲李康煥㊾ 대한교육보험사장
▲孫錫宰㊾ 광우실업㈜사장

▲李慈憲㊽ 국회의원
▲鄭春澤㊽ 전한국산업은행총재
▲韓甲洙㊻ 한국산업연구원원장
▲洪斗杓㊿ 한국전매공사사장
▲李憲祖㊼ 력키금성상사전무
▲李元洪㊺ 전문공부장관
▲金駒㊸ 금동교역상사사장
▲李榮一㊹ 전국회의원
▲鄭良謨㊽ 국립중앙박물관장
▲金相應 ㈜삼양사사장
▲高允錫㊹ 서울대자연대교수
▲閔錫泓㊽ 서울대인문대교수

◇美術大學

▲閔庚甲㊼ 가든타워화실대표

◇法科大學

▲權秉順㊽ K·B㈜사장
▲金德柱㊻ 전대법원판사·변호사
▲金永均㊾ 중앙선관위위원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 入金되고 있읍니다. 奬學사업을 비롯한 母校돕기에 많은 財源이 소요되고 있는 同窓會에서는 가급적이면 各會員들께서 앞당겨 會費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母校 발전과 동창회의 活性化에 도움을 주시는 뜻으로 여기시고 되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會費내역－

- 一般會費……1만원
- 理事會費……5만원
- 常任理事……10만원
  (회원 3천명 이상)……20만원
- 監事……30만원
- 副會長……50만원
- 會長……1백만원

▲朴一鉉㊼ 변호사
▲黃英奎㊻ 태평양화학㈜사장
▲徐廷信㊷ 법무부차관
▲金致善㊺ 숭실대총장
▲趙正濟㊹ 변호사
▲辛萬敎㊿ 과기처차관
▲尹柱元㊽ 아진산업㈜회장
▲李定洛㊸ 납부지원장
▲金斗培㊼ 한불통합금융사장
▲李基萬㊷ 대신통상사장
▲文鴻柱㊵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吳在德㊼ 한국화약그룹사장
▲張炳圭㊼ 문교부차관
▲朴哲彦㊺ 청와대정책담당보좌관
▲李遠台㊼ 대호건설㈜사장
▲裵渡㊼ 효성물산㈜대표이사
▲丁燿鉉㊸ 금강개발산업㈜사장
▲洪承丸㊻ 중앙투자금융사장
▲韓永錫㊶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閔濟榮㊼ 호남석유화학부사장
▲林寅澤㊸ 전국무총리
▲盧信永㊻ 공진청장

▲孫吉丞㊸ 선경합섬경영기획실장
▲柳明集㊾ 대농사장
▲邊義鏞㊻ 삼구무역㈜사장
▲朴光華㊺ 경일상호신용금고대표이사
▲金奎鉉㊻ 한일은행상무이사
▲沈遠澤㊸ 오류농장㈜회장
▲白學遵㊻ 동양철관㈜전무
▲奇秉泰㊼ 오공산업주사장
▲金榮壹㊺ 신북기업㈜사장
▲孫錫來㊶ 대한교육보험전무
▲金英錫㊻ 조흥은행장
▲徐泰植㊸ 삼일회계법인회장
▲李揆行㊽ 한국경제신문사장
▲宋世昌㊼ 제일모직사장
▲吳寅賢㊹ 유한컴퓨리㈜부사장
▲姜兌錫㊺ 대생기업㈜사장
▲申大均㊼ 대균상사㈜대표이사
▲金相燦㊻ 고려투자금융사장
▲權鍾碧㊽ 한국야구르트유업상무
▲宋桂先㊼ 한국외환은행업무추진부장
▲金潤宰㊽ 한국유리㈜전무
▲朴憲斗㊹ 한국체인공업대표이사
▲宋宙植㊷ 한국볼트공업㈜사장
▲公正坤㊾ 동양나이론㈜전무
▲康南彦㊷ 안전아주회계법인
▲李甲植㊸ 유양기업㈜사장
▲金榮石㊻ 대한교육보험부사장
▲金允煥㊿ 고려검정㈜대표이사
▲金榮浩㊽ ㈜신호주택부사장
▲朴聖麒㊶ 한국바이린사장
▲金鍾昱㊷ ㈜전방부사장
▲宋基台㊻ 삼도물산고문
▲金昌達㊼ 한국기술개발사장
▲安承喆㊿ 중소기업은행장
▲李德勳㊿ 홍농종묘㈜사장
▲金恒德㊺ ㈜유공사장
▲길두인㊾

◇師範大學

▲李胤夏㊶ 장흥군수
▲權清子㊼ 성남성보상고교장
▲李漢星㊼ 공한예식장
▲文炳寬㊹ 한영해운대표
▲柳光烈㊻ 성화출판사장

◇商科大學

# 一般會員

## ◇藥學大學
▲李相燮(54) 서울대약대교수
▲高載益(33) 삼일제약회장
▲尹相澈(51) 수정약국대표
▲洪恩璨(58) 홍약국

## ◇醫科大學
▲全鍾暉(35) 부산인제의대내과학교수
▲李壽鍾(43) 부천대성병원장

## ◇齒科大學
▲吳文甲(57) 오분갑치과의원장

## ◇經營大學院
▲金弘殖(71) ㈜금목주회장

## ◇保健大學院
▲申光淳(62) 모교수의대교수
▲金秀哲(67) 김수철성형외과원장
▲安商璟(60) 국립보건원기구과장

## ◇司法大學院
▲孫健雄(67) 변호사
▲李命甲(65) 변호사

## ◇新聞大學院
▲李葵佑(75) 조선일보소년조선편집국장
▲梁榮太(74) 양영태치과의원원장
▲李根洙(69) 대우투자회사사장

## ◇人文大學
▲安炳郁(76) ▲金敬洙(82)
▲李敬佑(75) ▲吳正煥(81)
▲李鳳燮(54) ▲李相澈(51) ▲洪恩璨(58)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社會大學
▲安炳郁(76) ▲金敬洙(82)
▲李敬佑(75) ▲吳正煥(81)
▲李鳳燮(54) ▲李相澈(51) ▲洪恩璨(58)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自然大學
▲安炳郁(76) ▲金敬洙(82)
▲李敬佑(75) ▲吳正煥(81)
▲李鳳燮(54) ▲李相澈(51) ▲洪恩璨(58)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經營大學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大學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家政大學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工科大學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農科大學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文理科大學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美術大學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法科大學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師範大學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商科大學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獸醫科大學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藥學大學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醫科大學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音樂大學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看護學科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齒科大學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大學院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教育大學院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保健大學院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新聞大學院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經營大學院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職場支部

## ◇兩山곡산 7만원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한양여중 6만원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동화약품공업 9만원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동아건설산업 15만원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두산식품 12만원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배화여고 11만원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行政大學院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環境大學院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未詳
▲李相燮(54) ▲高載益(33) ▲尹相澈(51) ▲洪恩璨(58)
▲全鍾暉(35) ▲李壽鍾(43)
▲申光淳(62) ▲金秀哲(67) ▲安商璟(60)
▲孫健雄(67) ▲李命甲(65)
▲李葵佑(75) ▲李根洙(69)

# 母校소식

## 「大學行政의 개선방향」 공청회

「서울대학교 발전방안」 제4차 공청회가 「대학행정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지난 1일 오후 3시 문화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열렸다.

金鍾喆교수(교육행정학)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행정대학원 鄭正佑(정책학), 金東建(재정학), 鄭弘奠(사회학)교수 등이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철학과 李明賢교수(분석철학)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세미나는 지난 2월 모교의 자율적 발전방안에 관한 제1차 공청회와 대학예산회계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지난달 6일 제2차세미나, 「국민윤리」의 개선방안이라는 18일의 제3차세미나에 이어 열린 것이다.

# 碩·博士논문제출 자격시험 논란

## "大學院 시험의 되풀이" 주장

## 敎育法 施行令 개정이 관건

「석·박사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이 실제적인 내용에 맞지 않고 형식적인 시험이 돼 논문작성에 방해를 주는 등, 그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행 교육법 시행령 21조를 보면 석사과정은 외국어와 전공을, 박사과정은 영어, 제2외국어, 전공등의 시험을 봐 일정점수를 넘어야만 논문제출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교에서는 석사과정의 경우 영어(필수), 제2외국어, 전공을, 박사과정은 영어(필수), 제2외국어, 기초공통, 전공 등의 시험을 치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막상 대학원입학 시험을 치룬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삼황에서 독같은 과목의 시험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밖에 없고, 또 외국어와 별로 관계가 없는 학과의 경우에도 논문작성을 뒤로 미루고 영어와 제2외국어 공부를 억지로 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논문작성을 위해 실험에 몰두해야 하는 자연대의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불합리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대해 본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하며 또 이것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삼위법인 교육법시행령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 어쩔수 없다」는 학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이 제도를 폐지하려할 경우, 이 제도는 지방대에서의 학위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어 그 폐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학자율화의 기운이 높아가고 있고 또 당사자인 학생뿐 아니라, 교수, 관계자 등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문교부의 단안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法大학장에 李壽成 교수

### 투표로 복수 추천받아 임명

대학의 자율성 제고로 學·院長의 임명에 교수들의 의견 반영이 점차 확대 되어가고 있다.

모교는 지난 3일 보건대학원장에 이어 법대 학장을 법대 교수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추천한 李壽成교수(51·공법학)를 임명했다.

李교수는 56년 서울고를 나와 61년 모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76년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67년 법학연구소 전임강사로 발령받은 후 현재까지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에 앞서 법대교수회의를 열고 학장후보에 대한 비밀투표를 실시, 李교수와 郭潤直교수를 총장에게 복수 추천했고 총장이 李교수를 선임한후 인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최종 임명된 것이다.

## 敎授 약간명 공개채용

### 박사학위자 원칙…서류 이달末 마감

모교에서는 분야별로 교수요원(전임강사이상)약간명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人文大學 국어국문, 중어중문, 영어영문, 불어불문, 노어노문 △社會大學 정치학, 경제학, 신문학 △自然大學 수학, 화학, 물리학, 미생물학, 통계학, 지질학, 대기과학, 식물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학, 생리학, 해양학 △音樂大學 작곡 △醫科大學 의학 △齒科大學 치의학 그리고 半導體共同硏究所 등이다.

응모자격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제출서류로는 이력서 2부, 연구실적물 편(권)당 2부, 학력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각1부와 동일 전공분야의 대학교원 또는 기타인사 2명의 추천서 각1부이다.

서류제출은 88년 7월 31일까지 모교 교무처 교무과로 해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모교 인사규정에 따라 심사하며 결과는 개별통지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교 교무과(전화 885-4740, 880-5026~7)에 문의하면 된다.

## 洪承萬씨 유족 1억기부

### 「經營大 義谷장학회」 설립

경영대에서는 故 義谷 洪承萬씨의 유족들이 기부한 1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조성, 지난 28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義谷장학회」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장학회는 이 기금으로부터 얻어지는 1년동안의 이자수익을 매년 경영대 학부재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故 洪承萬씨는 86년 10월 21일 숙환으로 별세했는데, 유족으로는 미망인 咸泰仁(74)씨와 3남2녀가 있다.

## 九老区庁 사건으로 負傷한 梁源太군 돕기운동 활발

### 주위 도움으로 서울大 병원에 移院

### 後援基金 마련위한 演奏會도 열려

지난해 12월18일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밀반출사건」에 항의, 시위도중 진압경찰에 밀려 5층에서 추락, 척추3·4·5번(목아래부위) 뼈가 절단되고 중추신경이 끊겨 하반신이 마비된 채 고대부속구로병원 610호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梁源太(23·경영2)군이 趙完圭 총장, 金正年경영대학장 등의 교수와 학생들의 노력으로 서울대병원 9502호로 이원되었다.

지난 3일 서울대병원으로 이원한 梁군은 앞으로 물리치료와 재활훈련을 받게되는데 현재 혼자서 휠체어를탈 수 있을 정도의 회복단계에 있다.

그러나 신경이 다시 회복될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은 그대로 유효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내의 여러 곳에서 「양군을 돕자」는 움직임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함께 경영대 교수들은 양군이 불구의 몸을 이겨내고 재활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돕는 모임」을 만들었으며 아직 5학기가 남은 양군이 학업을 끝낼 수 있도록 학교측과 상의해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앞으로 강의내용을 테이프에 녹음해 병실에 보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대 金正年학장은 『여러 곳에서 양군을 위한 성금이 모이고 있으나 양군이 재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기금」 마련을 해야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돕기운동」을 벌여나갈 뜻을 밝혔다.

이런 움직임이전에 「양군 돕기」 운동은 이미 지난 3월초부터 홍익고 동문 경영대 학생회 등을 중심으로 일차집, 모금운동, 기금마련 도서할인 판매 등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왔으며, 외부에서도지난 4월4일 재야인사를 중심으로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밀반출 항의 투쟁 중상자 양원태후원회(회장: 桂勳弟)」가 구성되어 활동을 계속 벌여오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축제때 「양원태군돕기 기금모금」을 위해 체육교육과학생들이 체조시범을 보이기도 했으며, 지난 2일에는 아크로폴리스에서 경영대·음대학생회 주최로 「양원태학형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연주회」가 열려 약30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었다.

한편, 양군의 치료에 있어 정부측도 책임을 통감하고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학내외의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것도 주목할만하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梁源太군 어머니 崔壽禮씨(57세)는 『당초에 치료비와 입원비로 걱정스러웠지만 구로병원측에서 의료보험을 적용시켜 주고, 독지가의도움이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하면서 고마움을 잊지 못했다.

## 駐韓오스트리아大使 南北韓관계강연

언문과학연구소(소장: 池明烈교수·독문학)에서는 폐터 모저 주한 오스트리아 大使를 초청, 「오스트리아 중립주의에 비추어본 남북한 관계」라는 주제로 지난 27일 오후3시 인문대 교수회의실에서 김명렬 교수(영문학)의 사회로 강연회를 가졌다.